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탄력 받나

‘이전 부지 마련’ 최대 관건
국방부, 무등산서 현장 토의

광주군공항 이전과 함께 해묵은 이 지역의 현안 사업인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작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방부가 조만간 무등산을 방문해 이전 과정에 대한 현장 토의를 하고,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방공포대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부지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 부지

마련’이 최대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26일 국회 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2시 무등산방공포대 내에서 무등산 방공기지 이전대책을 내놓고 관련사항을 토의하는 현장방문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공군 미사일방어사령관이 직접 보고를 하고,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공군 미사일방어사령관, 육군 제31보병사단장, 광주시 군공항교통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방공포대 이전 실질 당사자들과 지자체, 공원관리공단 등 당사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절차에 돌입하는 첫발을 내딛을 전망이다.

이날 보고를 통해 부대현황,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대책, 협조사항, 선개방 시 제한사항 등 포대 이전 대책이 공개되고 실무 당사자들의 실질적 토의를 통해 보안점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국방부는 최근 국회에 “광주시가 부지만 결정해 주면 옮길 의향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광주시와 국방부 등의 방공포대 이전 논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 암매장 유골 신원 확인됐다 총장로 음식점 종업원 23세 Y씨

5월 24일 광주서 행방불명 신고

42년만에 옛 광주교도소에 암매장된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26일 국회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 등에 따르면 최근 유전자 가 확인된 행방불명자는 Y(1980년 당시 23세)씨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6면>

Y씨는 1980년 5월 20일과 1988년 6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큰아빠지가 행방불명 신고를 했다.

광주에서 진행한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신고접수시 화순군 이양면이 주소지인 Y씨는 1980년 5월 24일 행방불명 된 것으로는 신고됐으나, 구체적인 장소와 사유는 ‘미상’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Y씨는 광주시가 행방불명자로 인정한 85명에 포함돼 있다.

광주 총장로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Y씨는 1979년 9월 방위병 복무를 마치고 고향인 화순과 광주를 수시로 오갔다. Y씨는 1980년 5월 24일 친구를 만난다고 광주로 간 이후 연락이 끊겼다.

Y씨 친구 2명과 직장 동료가 마지막으로 Y씨를 광주에서 봤다고 증언한 점과 1988년 광주지방법원에 실종신고 처리가 됐다는 점에서 광주시는 그를 5·18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Y씨의 유전자 발견된 유골은 염색체는 261구의 유해 유골 더미에서 발견됐고, 뼈 조각 1800여 개가 뒤섞여 있었던 만큼 전체적인 유전자감식이 끝나야 Y씨의 유해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5·18진상조사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에 매치된 유가족의 유전자는 5·18진상조사위 출범 이후 채워진 여동생의 혈액의 조사 결과로 확인됐다.

5·18진상조사위는 행방불명 전수조사 및 행방 경위 추적을 위해 광주시에 보상신청을 한 242명(중복포함)의 제적 등본 및 주민등록본 등을 수집해 생존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선행했다.

이후 유전자 분석을 위해 모든 행방 불명자와 유전자 가계도를 확인하며 유전자 채취를 권유

해 왔다.

이러한 행방불명자 유가족에 대한 체혈은 광주시의 ‘행방불명자 소재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대 법의학 교실에서 지난 2001년부터 진행해 왔다. 5·18진상조사위는 출범이후 이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광주시로부터 넘겨 받아 행방불명자를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85명의 행방불명 인정자 중 78명 유가족 164명의 혈액을 채취했고, 7가족에 대한 체혈을 권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18진상조사위는 불명정자인 행방불명자 73명의 유가족 155명에 대한 유전자 정보에 추가로 46명의 행방불명자 가족 58명의 혈액을 채취해 현재 총 유가족 377명의 유전자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장은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이 5·18 행방불명자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5·18 진실을 규명하고, 암매장으로 희생된 이들을 찾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6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 42년 동안 철저히 은폐됐던 역사적 진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지원, 국과수와 함께 하는 신원확인 작업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에도 초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옛 광주교도소뿐 아니라 암매장 의혹이 제기된 다른 장소에 대한 추가 조사 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민(광산갑) 의원이 이날 SNS를 통해 “40여년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 국가는 여전히 공식 인정받지 못한 5·18행방불명자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령이 된 5·18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남은 시간을 위해 정부는 조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면서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미완의 활동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조사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스피가 3% 넘게 폭락하며 2년 2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마감한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도 700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원/달러 환율은 13년 반 만에 1430원대까지 올랐다. /연합뉴스

‘검은 월요일’ ... 환율 1430원 돌파·코스닥 5% 폭락

코스피 3% 급락 2220.94

미국의 통화 긴축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26일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며 2년 2개월여 만에 최저

치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9.06포인트(3.02%) 내린 2220.94에 장을 마쳤다. 이는 증가 기준으로 지난 2020년 7월27일(2217.86) 이후 최저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2456억원을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고, 외국인도 36억원어치 팔았다. 기관은 2800억원 순매수했다.

지난주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3년 6개월여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2.0원 오른 1431.3원에 마

감했다.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와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 이탈리아 극우 정권 출범 등도 투자 심리 위축에 영향을 줬다.

코스닥도 2년 3개월여 만에 700선을 밑돌며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36.99포인트(5.07%) 내린 692.37에 장을 마쳤다. 지수가 700선을 밑돈 건 지난 2020년 6월15일(693.15)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개인이 1903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도 기관은 각각 1229억원, 839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하루 코스피 시가총액은 54조4000억원, 코스닥 시가총액은 16조6000억원 각각 감소해 증시에서 시총 약 71조원이 증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경, 광주 인쇄 시대 개막!

광주에서도 서울과 똑같은 생생한 한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77-5454

바이탈뷰티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